

시제 해석 규칙

정소우* †
성신여자대학교

Sowoo Chung. 1999. Temporal Interpretation Rules. *Language and Information* 3.1, 1-2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and Stowell (1993), Stowell (1995), Stowell (1996)'s syntactic analysis of tense in English. Stowell treats Tense as a dyadic predicate of temporal ordering which takes those two *time-denoting phrases* as its arguments. He further argues that those two morphemes 'resent' and 'past' are polarity-sensitive elements encoding an LF-scope relation with respect to true PAST tense. This paper proposes that English future 'will' should be treated as a true tense and that its future morpheme is an anti- PAST polarity item. It also provides a syntactic interpretation of a peculiar morphological aspect of English that it has no future form of the verb. To this end, Stowell's analysis is incorporated into the Minimalist program of Chomsky (1995). It is proposed that, unlike in other languages like French and Spanish, FUTURE in English is of an affix. This provides an intuitively correct description of why English verbs do not have a future form like other languages. The last but not least point which this paper will discuss is that Ogihara (1995a)'s claim that the referential theory of tensed sentences is inadequate is untenab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1. 서론

본 논문은 영어 종속절 시제 해석을 위한 통사적 규칙을 다루고자 한다. 영어의 시제 현상을 통사적으로 다룬 문헌으로는 Enç (1987), Zagona (1995), Stowell (1993), Stowell (1995), Stowell (1996) 등 여러 문헌이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여러 분석들을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Stowell이 제시한 시제 분석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towell은 전통적으로 시제라고 여겨졌던 것을 '시간 (Time)'과 '시제 (Tense)'로 구분한다. 시제는 TP의 핵인 T이며, T는 '외부논항 (external argument)'과 '내부논항 (internal argument)'인 두 논항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술어 (dyadic predicates of temporal ordering)로 설정한다. 그는 과거시제 형태소 '-ed'나 현재시제 형태소 '-s'는 진정한 시제 (true tense)가 아니라 any나 some과 유사하게 극어(Polarity Items)로 보고 그에 따른 제약조건을 설정한다.

본 논문은 미래를 나타내는 will 역시 현재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극어의 성격을 지녔으며, 과거시제의 범위 밖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도 보이고자 한다. Stowell이 제시한 분석 중 보문절과 종속절 이동 뒤에 남는 복사체에 대한 문제도 논한다. 또한, 영어의 본동사가 미래형을 갖지 못하는 형태론적 특성에 대한 통사론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Stowell의 시제 구조를 Chomsky (1995)의 최소주의이론 (The Minimalist Program)에 접목시킨다. 그리고, 시제는 지시적 표현이 아니라는 Ogihara (1995a)주장의 타당성 여부도 간략히 다룰 것이다.

*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swchung@cc.sungshin.ac.kr

† 이 논문은 199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시제 구조

본 절은 Stowell이 제시한 시제의 술어 개념과 시제형태소의 극어 개념을 살펴본다. 이미 그의 분석에 익숙한 독자는 본 절을 생략하고 3절부터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2.1 술어로서의 시제

Stowell은 Zagona (1995)를 따라 전통적으로 시제라고 여겨졌던 것을 ‘시간 (Time)’과 ‘시제 (Tense)’로 구분한다. 하지만, Stowell은 Zagona와는 달리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의 순서가 의미론적이거나 통사론적인 것으로 본다. 시간의 순서를 통사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Stowell은 Zagona의 시제 술어 개념을 Pollock (1989)의 시제 구조에 접목시켜, 시제는 TP의 핵인 T이며, T는 외부논항 ZP와 내부논항 ZP의 두 논항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술어로 설정한다. T의 주어에 해당하는 외부논항은 TP의 지정어(Spec) 자리에 위치하며 의미역 표시된다. 내부논항 ZP는 T의 보어(complement)가 되며, 그 핵인 Z는 VP를 보어로 취한다.

Stowell (1996)의 분석에서 시제의 의미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PAST는 ‘후’를 의미하고, will은 ‘전 (before)’를 의미하며, PRESENT는 ‘동시에 또는 겹치는 (simultaneous with or overlap)’을 의미한다. 시간을 지시하는 T의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은 모두 지시적 표현으로 결속이론을 따른다. 내부논항 ZP는 동사구에 의해 지시되는 사건의 시간을 나타낸다. 반면, 외부논항 ZP는 내부논항에 나타난 사건 시간에 대한 기준시간을 나타내며, 마치 PRO와 같은 성격을 띤다. 주절의 시제의 외부 논항을 성분통어하는 ZP가 하나도 없으므로, 그 외부 논항은 지칭적(indexical) 표현처럼 임의적인 시간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화시간을 지시하게 된다.¹ 종속절 시제의 외부 논항은 통제 PRO (control PRO)처럼 행동을 하는데, 가장 가까이 성분통어하는 ZP 즉 주절의 사건 시간을 나타내는 ZP에 의해 통제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Stowell의 시제구조를 예문을 통해 알아본다. (1나)는 Stowell의 분석에 따라 작성한 (1가)의 통사적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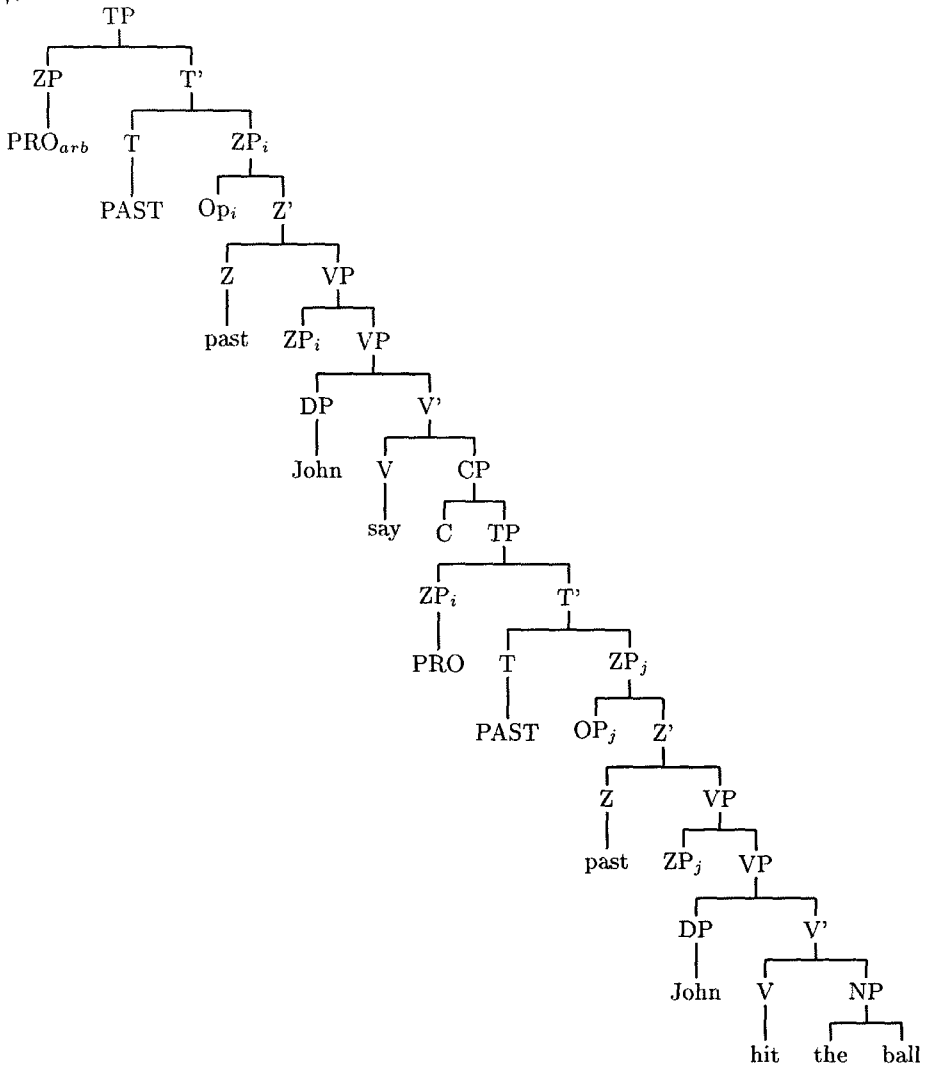
1. 주절 시제의 외부논항이 발화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지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역사적 현재시제 문장에서 볼 수 있다.

I couldn't believe it! Just as we arrived, up comes Ben and slaps me on the back as if we're life-long friends. 'Come on, old pal,' he says, 'Let me buy you a drink!' I'm telling you, I nearly fainted on the spot. Quirk et al. (1985)

역사적 현재시제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논항은 문맥에 의해 정해진다. 예로써 위의 예에서 'he says' 문장의 시제 외부논항은 발화시간이 아닌 화자가 Ben을 만났던 과거 사건의 시간이 될 것이다.

(1) 가. John said that Bill hit the ball.

나.



위의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절 T의 외부논항인 PROarb를 성분통어하는 시간이 전혀 없으므로, 발화시간을 지시하게 된다. 주절 T가 PAST이므로 PROarb와 T의 내부논항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주절 사건 시간인 OP_i와의 시간적 순서는 OP_i가 PROarb를 선행한다. 즉, 주절 사건인 ‘John이 말한 것’은 발화시점이 이전에 생긴 사건이다. 종속절 T의 외부논항 ZP_i는 성분통어하는 주절 사건의 시간에 의해 통제되어, 결과로 주절 사건과 같은 시간을 지시하게 된다. 종속절 T가 PAST이므로 종속절 사건 시간인 OP_j는 그 기준 시간이 되는 ZP_i 보다 앞선 시간이 된다. 이는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 보다 앞서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극어로서의 시제 형태소

Stowell은 시제 형태소와 시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달리 말해서, 영어의 과거 형태소 ‘-ed’가 반드시 PAST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보이는 소위 시제의 일치 (sequence of tense) 현상에 기초를 둔다.

(2) John said that Mary was in Paris.

위 문장은 두 가지 시제 해석을 준다. 하나는 Mary가 빠리에 있는 것이 John이 말하는 시간보다 과거의 사건이 되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Mary가 빠리에 있는 시간과 John이 말하는 시간이 겹쳐지는 해석이다. Stowell은 동사의 과거형이 반드시 PAST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해석은 불가능하므로, 동사가 과거형이라 할지라도 TP의 핵 T는 PRESENT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Stowell은 동사의 시제 형태소는 진정한 시제가 아니며, 시제는 TP의 핵인 T에 음성적 가치가 없는 자질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Stowell의 설명을 따르면, (2)에서 종속절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간을 지시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전의 과거 시간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종속절 TP의 핵이 PRESENT나 PAST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3) 가. John PRO-ZP PAST ZP_i past say that Mary PRO-ZP_i PAST ZP_j past be in Paris.

나. John PRO-ZP PAST ZP_i past say that Mary PRO-ZP_i PRESENT (또는 ϕ) ZP_i past be in Paris.

(3가)와 (3나) 두 구조에서 주절의 PRO-ZP는 어느 시간에 의해서도 성분통어를 받지 않으므로 발화시간을 지시하고 반면에 종속절의 PRO-ZP는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주절의 사건 시간과 같은 시간을 지시한다. 또한 주절의 시제가 PAST이므로 문장 전체의 발화시간은 John이 보문절의 내용을 말한 시간보다 후가 된다. 달리 말하면 John이 말한 시간은 문장 (2)의 발화시간인 현재보다 앞선 시간 즉 과거라는 것이다. 두 구조의 차이점은 보문절의 시제에 있다. (3가)의 시제는 PAST로써 보문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보다 앞선 시간에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반면, (3나)의 시제는 PRESENT로써 이는 보문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과 같은 시간에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설명에서 흥미로운 점은 (3나)에서 보문절에 과거 형태소가 사용되었지만 시제는 PRESENT 또는 무시제 (ϕ)라는 것이다. 즉, 동사의 시제 형태소가 T의 시제 자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동사의 시제 형태소와 T의 시제 자질 사이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로써, 아래의 예문을 보자.

(4) Mary visited Seoul.

동사가 과거형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문장의 시제가 현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5)번의 문장에서 Mary가 서울을 현재 방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직관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4)의 유일한 해석은 Mary가 서울을 방문한 것은 문장의 발화시점인 현재보다 앞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즉, (4)의 TP의 핵 T는 반드시 PAST이어야 한다. 같은 논리로 과거형 동사가 쓰인 단문이나 복문의 주절의 T는 반드시 PAST이어야 한다.

또한, 아래의 문장과 같이 주절의 동사가 현재형인 경우, 과거형 동사를 가진 종속절의 T는 반드시 PAST이어야 한다.

(5) John thinks that Mary was in Paris.

위 문장의 종속절 사건은 문장의 발화시간인 현재보다 앞선 과거의 시간에 일어난 것이다. 즉, Mary가 빠리에 있었던 시간은 과거이다. 물론, 이 해석이 Mary가 현재까지도 빠리에 있는 경우, 위 문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 Mary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리에 있어도 위의 문장은 참이 될 수 있다. 사실, 위의 문장은 Mary가 현재 빠리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문장이다. 하지만, Mary가 현재 빠리에 있다는 것만을 보장하고 과거에 빠리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 해석은 (5)에서 주어질 수 없다. 즉, 위 문장의 종속절의 T는 PRESENT이 될 수가 없다.

(5)번 문장의 종속절의 T가 PRESENT이 될 수 없는 반면 (2)번 문장의 종속절 T가 PRESENT 또는 빈 시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주절 시제의 차이에 있다. (2)번 문장의 주

절 시제는 PAST인 반면, (5)번 문장의 주절 시제는 PRESENT이다. 그럼, (5)번 문장의 주절 시제는 PAST가 될 수 없는가? 과거형 동사가 쓰인 종속절의 T가 PAST나 PRESENT이 될 수 있다면, 현재형 동사가 쓰인 절의 T는 PAST가 될 수 없는가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Stowell은 현재형 동사가 쓰인 절의 T는 그 절이 주절이던 종속절이던 반드시 PRESENT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 문장과 같이 현재형 동사가 쓰인 절은 그 시제가 PAST로 해석되는 경우가 전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6) 가. Mary is in Paris.

나. John thinks that Mary is in Paris.

/noindent (6가)는 Mary가 현재 빠리에 있다는 것이지, 과거에 빠리에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6나)에서 역시 Mary가 빠리에 있는 시간은 현재이며 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John의 생각 역시 현재 시간의 생각이지만 과거시점의 생각이 될 수 없다. 즉, 현재형 동사가 쓰인 절의 T는 반드시 PRESENT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소위 이중접근 문장 (double-access sentences)은 현재형 동사가 쓰인 절의 T가 반드시 PRESENT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느낌을 준다.

(7) John said that Mary is pregnant.

위의 문장을 Bill이 발화하였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위 문장은 John이 발화한 시점과 Bill이 발화한 시점 두 시점 모두에 Mary가 임신한 상태일 때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² 즉, 위의 문장은 보문절의 내용이 주절에 명시된 과거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내포절에 명시된 발화시점에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접근문장이라고 일컬어진다. 이같은 종속절 사건이 시간적으로 이중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속절의 시제가 동시에 PAST와 PRESENT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즉, 현재형 동사가 쓰인 절의 T가 PAST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형 동사가 쓰인 절의 T가 PAST도 될 수 있다면 (6)의 문장과 관련하여 이미 논하였듯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 어휘 성분이 논리형태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지배와 결속이론은 물론 최소주의 이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Stowell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시제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과거 형태소와 시제 형태소를 극어로 보면서, (8나)의 극어제약조건을 제시한다.

(8) 가. 과거시제 형태소 '-ed (past)'나 현재시제 형태소 '-s (present)'는 진정한 시제(true tense)가 아니라 any나 some과 같은 극어(Polarity Items)이다.³

나. 과거극어 past는 시제 PAST에 의해 성분통어(c-command)되어야 하며 present는 반과거 극어 (antipast polarity item)로써 PAST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서는 안된다.

(8나)에 제시된 현재 형태소의 반과거극어 특성은 (7)번 문장의 논리형태에서 종속절 이동을 유발한다. 그 과정을 묘사하면 아래와 같다.

2. 일견, (7)과 같은 이중접근문장은 시제일치규칙을 위반하는 비문법적 문장인 것 같으나, 이 문장들은 Quirk et al. (1985), Stowell (1993), Stowell (1995) 등 여러 문헌에 설명되었듯이 지극히 문법적인 문장이다. 이 문장이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문헌마다 다소 다르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Comrie (1985), Sinclair et. al.(1992), Declerck (1991), Swan(1990), Smith (1978), Abusch(1991), Ogihara (1995b), 정소우 (1997)를 참조할 수 있다.

3. Stowell (1993)은 일어의 과거 형태소 '-ta'는 영어의 과거형태소와는 달리 진정한 시제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종속절 과거시제가 주절의 과거 시제와 같은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일본어에서는 종속절 과거 시제가 대과거로만 해석이 된다고 설명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국어에서도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 과거 시제는 항상 대과거로만 해석이 되므로 국어의 과거형태소 역시 진정한 시제라고 할 수 있다.

(i) 철수는 영화가 아팠다/우승했다고 말했다.

위의 예문에서 영화가 아픈/우승한 시점은 철수가 말한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만 해석이 된다.

(9) 가. John PRO-ZP PAST ZP_i past say that Mary PRO-ZP_i PRESENT ZP_i present be pregnant.

나. [[Mary PRO-ZP_o PRESENT ZP₂ present be pregnant] John PRO-ZP_o PAST ZP₁ past say [Mary PRO-ZP PRESENT ZP₂ present be pregnant]]

위의 구조 (9가)에서 반과거극어 present는 주절의 PAST에 의해 성분통어를 받으므로 (8나)의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조건 (8나)를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문절은 LF에서 본래의 자리에 복사체(음영처리된 부분)를 남기고 주절 PAST의 성분통어영역보다 높은 곳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때 보문절 이동으로 남은 복사체의 현재형태소는 극어 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Stowell (1993)). 상승된 보문절의 PRO-ZP는 어떠한 시간 표현에 의해서도 성분통어를 받지 않으므로 발화시점과 동일시 된다. 그래서 보문절의 사건은 발화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뒤에 남은 복사체는 주절의 사건 시간의 영역 안에 있는데, 이는 보문절의 사건은 John이 말한 시간에도 존재함을 뜻한다.

3. 종속절 이동과 복사체

본 절에서는 이중접근 문장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속절 이동과 그에 따른 복사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한다. 특히, 종속절 이동이 통사적인 요소에 의한 것인지 의미적인 요소에 의한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Stowell (1993), Stowell (1995)은 현재형 동사를 가진 관계절 역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면 반드시 주절 시제의 성분통어영역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관계절 또는 관계절과 그 선행 명사가 이동을 안한다면, (9)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관계절의 현재 시제 형태소가 주절의 PAST에 의해 성분통어되어 (8나)의 극어제약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아래 (10가)의 논리형태구조는 (10나) 또는 (10다)가 될 것이다.

(10) 가. John gave an ice-cream cone to a boy who is sitting outside.

나. [[who is sitting outside] [John gave an ice-cream cone to [a boy [who is sitting outside]]]]]

다. [[a boy who is sitting outside] [John gave an ice-cream cone to [a boy who is sitting outside]]]]

하지만, (10나)와 (10다)의 논리형태 구조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 문제점이란 다음과 같다. 종속절이 이동하였을 때 그 종속절 사건은 이동된 위치와 본래의 위치 즉 복사체가 남아 있는 위치 두 곳에서 시간적 해석을 갖는다는 앞 절의 설명을 따른다면, (10나)나 (10다)는 모두 소년이 밖에 앉아있는 시간이 John이 그에게 아이스크림을 준 시간과 문장 발화시간을 모두 포함한다는 해석만을 준다. 이 해석은 직관상 잘 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가)의 보다 일반적인 해석은 아이스크림을 준 시간과 문장 발화시간이 겹치지 않는 해석이다. (10나)와 (10다)와 관련된 문제점은 두 구조 모두 이 일반적인 해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Stowell (1993)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절은 이동시 복사체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10가)의 올바른 논리형태구조는 아래의 (11가) 또는 (11나)가 된다.

(11) 가. [[who is sitting outside] [John gave an ice-cream cone to a boy]]

나. [[a boy who is sitting outside] [John gave an ice-cream cone to]]

Stowell은 관계절의 PRO-ZP는 항상 발화시점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10가)에서 관계절의 사건의 시점은 발화시점과 동일하며, 그 관계절의 사건 시간이 John이 아이스크림을 준 시간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는 관계절 사건의 시간이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어

는 정도 확장되는가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과거시제를 가진 주절에 내포된 관계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 그 관계절 사건이 시간적으로 과거로 확장되어 주절의 과거시제가 지시하는 시점을 포함한다면 관계절 사건이 주절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포함하게 되며, 이는 통사적인 특성이 아닌 문법외적인 요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⁴

지금까지, 관계절 이동과 보문절 이동에 대한 Stowell의 설명이 다름을 보았다. 여기서, 왜 보문절은 관계절과는 달리 복사체를 뒤에 남기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물론, 보문절의 복사체는 (7)번 문장과 같은 이중접근 문장의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보문절 이동은 복사체를 남기지만 관계절은 그렇지 않는 것은 (10)번과 같은 문장에 의해 정당화된다. 하지만, 그 같은 차이를 유발하는 기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게 된다. Stowell (1993)은 이 같은 차이는 투사원리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say와 같은 내연적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투사원리와 동사의 의미적 특성 중 어느 요소가 복사체와 관련된 차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먼저, Stowell이 제시한 내연적 동사의 의미적 특성이 보문절 이동시 생기는 복사체에 대한 필요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예문을 보자.

(12) 가. Galileo discovered that the earth is round.

나. John grasped that the earth is round. (Kiparsky and Kiparsky 1971: 359)

다. John found out that Mary is pregnant. Ogihara (1995b)

4.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하였듯이, 아래의 예문 (i)은 (11)에 제시된 관계절의 이동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듯하다.

(i)Every professor recommended to the position a girl student who is taking his course this semester.

위의 예문에서 시제해석을 위하여 관계절을 이동하면 전칭양화사가 대명사를 결속할 수 없게되어 ‘every professor’와 ‘his’가 동일지시해석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그 논평자는 Stowell의 시제 분석에서 관계절 이동을 설정하지 않고, 문장 (10)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본문에서도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절 사건의 시간의 폭을 어느 정도 늘리냐에 따라 관계절 사건 시간이 주절 사건의 시간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필자는 Stowell은 present의 반과거극어 특성이 구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11)과 같은 문장에서 관계절 이동은 의무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는 “... explaining why present in a relative clause must be construed indexically when the main clause contains past: LF movement of the DP containing the relative is forced by the polarity requirement of present (Stowell (1995))”와 “the complement clause event-time ZP is headed by the anti-PPI element present, which must not be under the scope of any c-commanding Past at LF (Stowell (1993))” 등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Stowell은 이동된 보문절이나 관계절이 주절의 주어보다 높은 위치로 이동하는지 또는 주절의 주어와 주절의 T사이로 이동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Stowell은 “the polarity of present in the complement clause forces the complement clause to adjoin to the matrix TP at LF (Stowell (1993))”와 “the entire subordinate clause must be moved out of the c-command domain of the matrix PAST (Stowell (1995))” 구절을 통해 종속절이 주절의 T의 성분통어 영역 밖으로 이동한다는 것만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이 Stowell의 시제 분석을 확대, 보완하는 것이므로 필자는 과거시제를 가진 주절에 내포된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이면 구문에 관계없이 종속절이 상위로 이동한다는 Stowell 시제 분석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면, Stowell의 시제분석에서 (11)과 같은 관계절 이동을 허용하면서, 예문 (i)에 나타나는 ‘every professor’와 ‘his’간의 동일 지시 해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아래 (ii)와 같이 관계절이 주절의 시제보다 높으나 전체문장의 주어자리보다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every professor’와 ‘his’간의 성분통어관계는 유지되고, 또한 두 표현간의 동일 지시 해석도 유지될 수 있다.

(ii)Every professor [a girl student who is taking his course this semester] PAST past recommend to the position.

두 번째 방법은, 현재형태소의 반과거극어특성에 의해 관계절이 주절의 주어자리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관계절 이동 후 아래 (iii)과 같이 주절의 주어인 양화사구가 그 이동된 관계절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every professor’는 ‘his’를 성분통어하게 되며 두 표현간의 동일지시해석의 가능성도 유지된다.

(iii)[Every professor]_k [a girl student who is taking his course this semester] t_k PAST past recommend to the position.

위의 세 문장은 모두 이중접근 시제 해석을 갖는다. 그러므로, 논리형태구조에서 보문절은 주절의 T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뒤에 복사체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주절의 동사는 내연적 동사가 아니라 모두 사실성 동사다. 이는 보문절 이동으로 생기는 복사체가 주절 동사의 내연성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보문절 이동과 관계절 이동 시 보이는 복사체 유무 차이의 문제는 투자원리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즉, 통사 구조적 특성으로 관계절은 복사체를 남기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반면, 보문절은 이동 시 반드시 복사체를 남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관계절은 선행사가 설정하는 NP라는 범주에 싸여있지만, 보문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복사체 생성에 대한 제약조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문절은 상위절 동사의 하위범주구분(subcategorization)에 보어로 명시되는 요소이므로 보문절이 이동하면 반드시 복사체를 남겨야 하는 반면, 관계절은 상위절 동사의 하위범주구분에 명시되지 않는 부가구문이므로 관계절 이동시 복사체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관계절 이동 역시 복사체를 남기나 그 복사체 안의 외부논항 ZP는 사이에 있는 NP로 인해 주절의 사건시간과 관련을 맺지 못한다는 제약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통사이론 전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후에야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4. 반과거극어로서의 will

본 절에서는 will은 표층상 실현되지 않은 미래시제 형태소를 갖고있으며 TP의 핵 T에 미래시제 FUTURE를 설정하여주는 시제조동사이며, 현재형태소와 마찬가지로 반과거극어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will이 반과거극어라 함은 과거시제를 가진 주절에 내포된 종속절에 will이 나타나면 그 종속절은 논리구조에서 주절의 TP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본 절은 또한 현재형태소와 미래형태소는 각각 PRESENT와 FUTURE라는 시제에 성분통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4.1 시제 형태소와 허가 원리

본 절에서는 T의 시제와 T의 내부 논항 ZP이 Z에 나타나는 시제 형태소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 형태소는 미래시제에 의해서만, 현재 형태소는 현재시제에 의해서만 허가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will이 미래시제 FUTURE를 설정하여 주는 진정한 시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Stowell (1996)은 종속절에 will이 나타날 경우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과 동시간적인 해석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will은 가시적(overt)이며 진정한 시제로 취급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Stowell은 will이 진정한 시제라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will이 나타난 절의 TP의 핵 T가 FUTURE라고 분석하고자 하는 바램을 나타낸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그가 will을 위해 FUTURE라는 시제를 쓰지 않은 이유는 'will'이 시제조동사가 아닌 can과 같은 단순한 양상조동사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영어의 동사는 불어나 스페인어와는 달리 동사의 미래형이 없다. 그러한 이유로 Enç (1987), Enç (1997) 등 여러 문헌은 영어에는 미래시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형태론적인 특성만을 고려해 영어에 미래시제가 없다는 주장은 명령문장(ordering sentences)에도 추상적인 주어자리를 설정하는 통사이론의 방법론에 비추어볼 때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다. 만일 형태론적 특성만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대명사와는 달리 격표지가 문자로 실현되지 않는 영어의 명사구에 격이론(Case theory)과 의미역(theta-role)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중국어와같이 격표지가 문자로 실현되지 않는 언어에 대하여 격이론과 의미역 원리를 논할 수 있는가?⁵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형태론적인 특성만을 토대로 영어에 미래시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많은 무리

5. 중국어의 격과 의미역에 대한 논의로서 Li (1990a), LI (1990b)를 참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는 격표지가 형태론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ba'와같이 격을 표시하는 후치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격이론의 적용을 받지만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중국어와는 달리, 영어에서는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will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Enç (1997)처럼 영어의 will을 can과 같은 양상동사(modal)로 취급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Declerck (1991)과 Okamura (1996) 등은 영어의 will이 미래를 나타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Okamura는 will이 양상동사의 will과 미래조동사 will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함을 여러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Okamura가 제시한 예이다.

(13) 가. *I can speak German in another few months.

나. I'll be able to speak German in another few months.

다. *You can play the violin if you practise for long enough.

라. You will be able to play the violin if you practise for long enough.

(14) 가. The road can be blocked.

나. You may borrow my car. (Okamura (1996))

Okamura는 (14가)가 'It is possible to block the road.'로 해석될 수 있지만, 'It will be possible to block the road.'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과 (14나)가 'You are permitted to borrow my car.'로 해석되지만 'You will be permitted to borrow my car.'로는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can과 같은 조동사는 미래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⁶

본 논문은 Declerck과 Okamura 등의 주장을 따라, will을 양상조동사의 will과 미래조동사 will로 구분된다고 가정하며, 미래조동사로서의 will만 다루도록 한다.⁷

그리고, will은 미래시제 형태소를 지닌, would는 과거형태소를 지닌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본다. will이나 would가 FUTURE 시제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 두 표현이 쓰인 절에 묘사된 사건의 시점이 기준 시점보다 뒤에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는 시제는 사건 시점과 기준시점간의 순서를 나타낸다고 보는 Stowell의 분석에 아무런 문제없이 부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새로이 설정된 FUTURE와 미래시제 형태소가 포함된 영어 시제와 시제형태소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먼저, 과거 형태소와 T의 시제간의 관계를 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절의 과거 형태소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같은 절, 주절의 T의 시제는 반드시 PAST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과거형태소는 PAST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야 하는 과거극어이기 때문인데, 주절의 과거형태소를 성분통어할 수 있는 T는 같은 절의 T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형이고 종속절의 동사 역시 과거형이면, 그 종속절의 T는 주절의 T에 나타난 시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절의 T가 PAST라면, 종속절의 T는 PAST나 PRESENT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에서 종속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보다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사실은 주절의 T가 PAST일지라도 과거형 본동사를 가진 종속절의 T는 FUTURE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John said that Mary was pregnant.

6. Okamura는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일견 미래 시점을 지시하는 듯이 보이는 현재진행형이나 단순현재 역시 현재 시점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i) He is leaving for Paris tonight.

(ii) School finishes on 23rd March. (Okamura (1996))

그에 따르면, (i)는 미래 시점에 빠리로 떠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빠리로 떠나는 미래 행위를 수행하려는 현재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ii)는 화자가 발화 시점에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는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다.

7. 양상조동사로서의 will과 미래조동사로서의 will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Okamura (1996)을 참조할 수 있다.

반면, 주절의 T가 PRESENT나 FUTURE라면, 종속절의 T는 반드시 PAST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절의 T가 PRESENT나 FUTURE이고, 종속절의 T도 PRESENT나 FUTURE인 경우, 종속절의 과거형태소가 극어제약조건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⁸

이제, 현재 형태소와 미래 형태소는 어떻게 허가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아래의 예문을 보자.

(16) 가. John thinks that Mary will visit Seoul soon.

나. John will say that Mary will visit Seoul soon.

위의 두 문장에서 종속절의 사건은 모두 주절의 사건보다 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종속절의 TP 핵이 모두 PAST나 PRESENT가 될 수 없고 FUTURE가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16나)의 주절의 사건 역시 문장 발화 시간인 현재보다 과거이거나 현재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 반드시 현재보다 후인 미래 시점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John이 말하는 시간은 전체문장(16나)의 발화시점보다 후인 미래 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will의 미래 형태소는 같은 절에서 FUTURE에 의해서만 허가(license)되는 것이다.

반면, 현재 형태소는 PRESENT에 의해서만 허가될 수 있다. 현재 형태소는 반과거극어이므로 같은 절에서 PAST에 의해 성분통어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앞 절에서 이미 보았다. 여기서는 현재 형태소가 같은 절에서 FUTURE에 의해 성분통어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7) 가. John said that Mary is pregnant.

나. John believes that Mary is pregnant.

다. John will say that Mary is pregnant.

(17가)는 Mary의 임신이 John이 말한 시점과 현재 시점을 모두 포함 해석은 주지만, Mary가 미래 어느 시점에 임신할 것이라는 해석은 주지 않는다. (17나) 역시 Mary가 현재 임

8. 한 논평자는 아래의 예문 (i)의 논리구조는 (ii)가 될 것이며, 이는 Stowell의 분석에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i) I said that John believes that Tom was at Seoul.

(ii) [John PRESENT present believe [that Tom PAST past be at Seoul]] [I PAST past say that John PRESENT present believe Tom PAST past be at Seoul]

상위로 이동된 최하위 종속절이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본래 위치에 남아있는 복사체는 주절의 사건 즉 'saying' 사건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그 논평자가 지적한 문제점은 위의 구조에서 이동된 최하위 종속절의 사건 즉 'Tom's being at Seoul' 사건 시점이 문장 전체의 발화시점보다 이전인 어느 과거시점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때 그 과거시점이 주절의 'saying' 사건시점 이후의 과거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saying' 사건이 'Tom's being at Seoul' 사건보다 앞선 사건으로 되며, 이는 직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위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Stowell의 분석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위의 주장에서 간과된 사실은 'Tom's being at Seoul'이란 하나의 사건이 두 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위의 주장에서처럼 앞으로 이동한 'Tom's being at Seoul' 사건이 'saying' 사건시점 이후의 과거시점을 가리킨다고 가정하자. 이때, 'Tom's being at Seoul' 사건은 또한 본래의 위치에 남아있는 복사체를 통하여 'saying' 사건시점보다 더 이전의 과거시점을 가리키게 되는데, 결과로 나오는 해석은 'Tom's being at Seoul' 사건 시간이 'saying' 사건 시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Tom이 John이 말한 시점을 전후로 서울에 있었음을 뜻한다. 이는 직관에 맞는 해석중 하나이다. 사실, (7)과 같은 이중절근문장이 모두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7)의 'John's saying' 사건 시점은 'Mary's being pregnant' 사건 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John's saying' 사건 전후로 'Mary's being pregnant' 사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ii)와 관련하여 논평자가 제시한 해석은 종속절 사건의 이중절근 해석의 부분에 속한다. 이는 Stowell의 시제분석에 문제점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Stowell 시제 분석의 장점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이중절근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종속절 사건이 상태사건(states) 또는 진행사건(progressives)인 경우라는 것이다. 종속절 사건이 완수사건(accomplishments)이나 성취사건(achievements)인 경우는 이중절근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중절근문장을 생성하지도 못한다. 이에 대하여는 Stowell (1993)을 참조할 수 있다.

신 상태임을 뜻하는 것이지 미래 어느 시점에 임신할 것이라는 해석은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7다)도 위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Mary가 John이 말한 시점보다 후에 임신할 것이라는 해석은 전혀 주지 않는다. (17나)의 경우 주절에 나타난 John의 믿음은 현 발화 시점에 존재하는 믿음상태를 뜻하는 것이지 현 발화시점을 배제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의 믿음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위의 세 문장 모두 현재 형태소를 가진 동사가 지시하는 사건이 같은 절의 T의 외부논항의 시간을 기준으로 그 보다 후의 시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될 수는 없다. 이것은 현재 형태소는 PAST는 물론 FUTURE에 의해 허가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PRESENT에 의해 같은 절 내에서 허가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영어 시제 형태소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18) 가. 미래 시제 형태소 ‘future’는 같은 절에서 PAST나 PRESENT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FUTURE에 의해 허가받아야 한다.

나. 현재 시제 형태소 ‘present’는 같은 절에서 PAST나 FUTURE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PRESENT에 의해 허가받아야 한다.

(18나)에 제시된 현재형태소와 대한 제약조건은 (8나)의 현재형태소에 대한 제약조건 중 PAST와 관련한 부분은 중복이 되나 FUTURE와 present의 관계에 있어서 다르다. 두 조건은 하나의 조건으로 합쳐질 수가 있는데, 이는 다음 4.2절에서 will에 대하여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이루어 질 것이다.

4.2 반과거극어로서의 will

본 항에서는 will의 미래 형태소는 현재 형태소처럼 반과거극어임을 보이고자 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9) 가. John said that Mary will visit Seoul soon.

나. John said that Mary would visit Seoul soon.

본 절의 주요 관심사를 논하기전 위 두 문장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일견, (19가)는 시제일치규칙을 위반하는 비문법적 문장인 것 같으나, 이 문장 역시 앞에서 논의된 (8)과 같은 이중접근 문장들과 같이 지극히 문법적인 문장이다. 뿐만아니라, 필자는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9가)는 (19나)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준다. 가령 (19가)와 (19나)를 ‘Mary will visit Seoul soon.’이라고한 John의 말을 Bill이 Sue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한 발화라고 가정하자. John의 발화를 전달함에 있어 Bill이 Mary가 아직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시제일치를 통하여 (19나)처럼 발화하였다면 청자는 Mary가 이미 서울을 방문하였는지 아니면 아직 방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갖게 된다. 반면에 Bill이 미래시제를 사용하여 (19가)처럼 발화하였다면 청자는 아직 Mary가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할 것이라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되는 것이다. 더구나, (19나)는 보문절의 would가 과거 속의 미래를 뜻하는지 또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양상의 would인지 하는 중의성을 갖지만, 즉 John이 ‘Mary will visit Seoul soon.’이라고 말했는지 ‘Mary would visit Seoul soon.’이라고 말했는지 청자는 알 수 없지만, (19가)는 그러한 중의성이 없어 청자가 보다 용이하게 정보처리를 할 수 있다. 이제 본 절의 주요 관심사로 돌아와서, will과 종속절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will’을 단순히 미래시제로만 분석할 경우 위의 (19가)는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갖게 된다.

(20) John PAST past say that Mary FUTURE future will visit Seoul soon.

이는 John이 ‘Mary will visit Seoul soon’이라 말한 것은 문장 (20)의 발화시점보다 앞선 시간이며, Mary가 서울을 방문하는 시간은 John이 말한 시점보다 후라는 것이라는 해석을 준다. Mary가 서울을 방문하는 시점이 문장 (20)의 발화시점보다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것이 없다. FUTURE라는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will은 ‘before’를 뜻한다는

Stowell (1996)의 분석을 따라도 Mary가 서울을 방문하는 시점 과 (20)의 발화시점간의 순서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문장 (19가)의 화자는 자신의 발화시점 이전의 과거 시간에 John이 Mary가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으나 Mary는 아직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John의 말이 사실이라면 Mary는 자신의 발화시점 후인 어느 미래시점에서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9가)의 종속절은 (7)과 같은 이중접근문장에서처럼 John의 발화시점뿐만 아니라 (19가)의 발화시점도 기준으로 삼아 평가되어야 한다. 즉, 종속절 사건은 본래의 위치에서 주절 사건의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주절 시제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Mary가 발화시점 당시 아직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will의 미래형태소가 (또는 Stowell (1993), Stowell (1996)의 분석을 따른다면, will이) 현재 형태소처럼 반과거극어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래형태소가 반과거극어라는 본 논문의 주장이 맞다면, (19가)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21) 가. [that Mary will visit Seoul soon] John said [that Mary will visit Seoul soon]

나. [that Mary FUTURE future will visit Seoul soon] John PAST past say [that Mary FUTURE future will visit Seoul soon]

(21가)는 Stowell의 분석을 따른 것이고, (21나)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듯 will이 FUTURE라는 시제를 설정한다는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후, will이 나타나는 문장의 논리구조는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모두 (22나)의 방법에 따라 표현될 것이다. 위에서 음영처리된 종속절 [that Mary FUTURE future will visit Seoul soon]은 종속절 이동으로 생긴 복사체이다. 이 복사체에 있는 TP의 외부논항은 주절의 사건 시점을 지시하게 되고 그 내부논항인 복사체의 사건 시점은 그 외부논항이 지시하는 시점, 즉 주절의 사건 시점보다 후인 시점을 가리키게 된다. 반면, 이동된 종속절의 TP의 외부논항은 발화시점을 지시하게 되며 내부논항인 사건 시점은 그 외부논항의 시점 즉 발화시점보다 후인 미래의 한 시점을 지시하게 된다. 결국, 종속절의 사건 시점은 복사체로 인해 주절의 사건 시점보다 후라는 해석과 이동으로 인해 발화시점보다 후라는 해석의 합인 발화시점 후로 설정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해석의 방법은 (7)과 같이 현재시제를 가진 보문절이 과거시제를 가진 주절에 내포될 때 사용되는 해석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19) 역시 이중접근문장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새로이 반과거극어로 설정된 요소는 will에 나타나는 FUTURE가 아닌 미래형태소라 하였다. 이는 단순히 현재시제 PRESENT가 아닌 현재형태소 present를 반과거극어로 설정한 Stowell의 분석에 부합되는 면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만약 FUTURE를 반과거극어로 설정한다면 (19나)의 종속절 역시 논리구조에서 주절보다 높은 곳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로 (19나)는 (19가)와 같은 해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9나)에서 Mary의 서울 방문 시점이 문장 전체 발화시점보다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19나)의 종속절이 논리구조에서 반드시 주절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즉, (19나)의 논리구조는 아래의 (22)가 아닌 (23)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UTURE가 아닌 미래형태소가 반과거극어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that Mary FUTURE past would visit Seoul soon] John PAST past say [that Mary FUTURE past would visit Seoul soon]

(23) John PAST past say [that Mary FUTURE future will visit Seoul soon]

미래 형태소가 현재형태소와 마찬가지로 반과거극어로 분석되어야 함은 다음의 예에서도 뒷받침된다.

(24) John told me that tomorrow at breakfast h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ar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위 예문의 자연스런 해석은 John이 오늘 화자에게 말하기를 내일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그 식사가 둘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형태소는 반과거극어인 반면 미래 형태소는 반과거극어가 아니라면 (24)에서 이 자연스러운 해석을 도출할 수가 없다. 먼저, 미래 형태소가 반과거극어가 아니라 가정한다면, 위 문장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25)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John PAST past tell me that tomorrow at breakfas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위의 구조에서 제일 깊숙이 내포된 종속절이 상위절의 TP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한 것은 현재 형태소의 반과거극어 특성 때문이다. 이 결과로 나오는 해석은 John이 그의 어머니와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는 시점은 그가 어머니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24) 문장 발화시점 이후의 어느 미래 시점 (즉, 발화시점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인 동시에 그 발화시점과도 겹치게 된다. 즉, (25)가 (24)의 논리구조 형태라면 (24)는 John 이 문장 (24)의 발화 시점인 지금 현재부터 시작하여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미래 시점에 걸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한다는 해석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직관과 전혀 맞지 않는다. 사실, 현재 시제가 쓰인 최하부의 종속절이 중간에 내포된 종속절을 거쳐 중간 복사체를 남기면서 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로 나오는 해석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이 때 주어지는 해석은 John이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24)의 발화시점과 미래에 John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시점은 물론, John이 과거에 자기의 계획을 말한 시점과도 겹치게 되는 해석이 된다. 이는 우리의 직관에 더욱 어긋나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미래 형태소가 반과거극어가 아니고 현재 형태소만 반과거극어라고 가정한다면 (24)에서 구할 수 있는 해석은 우리의 직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뿐이다. 사실 이 두 해석이 직관에 어긋난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여 Stowell의 시제 분석의 통사적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보다는 의미론적 측면이나 화용론적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⁹ 어느 누구도 아침식사가 전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식사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의 관점은 (25)의 구조가 이러한 직관에 어긋나는 이러한 두가지 해석만을 준다는 사실보다, (25)의 구조에서 앞에 언급된 (24)의 자연스런 해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will의 미래 형태소가 반과거극어라고 가정하면, 위에 논의된 해석과 같이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는 해석은 제외되며, 직관에 맞는 해석을 갖게 된다. 미래 형태소가 반과거극어라고 가정할 때, (24)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26) [that tomorrow at breakfas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John PAST past tell me [that tomorrow at breakfas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26)에서 이동된 현재 시제는 미래 시제를 가진 바로 위의 절의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되며, 이동 뒤에 남아 있는 복사체의 현재 시제 역시 바로 위의 절의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되는데, 이 둘은 사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John이 어머니와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시간은 그가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시간과 겹칠 뿐, 현 발화시점과는 겹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우리의 직관에 맞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will의 미래 형태소가 반과거극어라는 주장은

9. 사실, (24)의 문장에서 'tomorrow at breakfast'란 표현이 없다면 앞에 논의된 두 해석 모두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보자. 가령, John이 지금 어머니와 식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철수가 어제 John이 한말을 상기하며 영희에게 (24)와 같은 발화를 하였다면 John이 어머니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은 (24)의 발화시간과 John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시간에 겹치게 된다. 두 번째 해석은 앞의 경우처럼 철수가 John이 지금 어머니와 식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잠시 전 John이 식사도중 자기에게 그의 계획을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철수가 영희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 두 해석은 아래에 다시 논의된다.

타당성을 갖게 된다.¹⁰

이제 미래 형태소를 반과거극어로 취급할 때, 앞의 각주에서 논의된 두 가지의 이중접근 해석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먼저, 논의를 위해 위 문장 (24)에서 ‘tomorrow at breakfast’를 삭제한다.

(27) John told me that h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ar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위 문장의 이중접근 해석은 아래와 같이 두 번의 중속절 이동을 거쳐서 얻어질 수 있다.

(28) 가. [tha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John PAST past tell me [tha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나.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tha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John PAST past tell me [tha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28가)에서 이루어진 중속절 이동은 중간 절에 있는 미래 형태소의 반과거극어 특성 때문에 이루어진 이동이다. (28가)는 (26)에서처럼 John이 식사를 하는 시간과 어머니에게 말하는 시간이 겹친다는 것만을 말해줄 뿐 식사시간이 문장 (27)의 발화시점과 겹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내는 바가 없다. 이는 식사시간의 폭에 따라 식사시간과 발화시점이 겹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식사시간을 늘려 문장 (27)의 발화시점을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식사시간을 과거로 더욱 늘리면 식사시간이 John의 발화시점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식사시간과 (27) 문장의 발화시점간의 포함관계는 (28가)의 구조에서 중간절에 내포되어 이동된 최하부의 중속절이 다시 한번 중간 절의 TP 영역 밖으로 이동시켜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그 이동을 나타낸 것이 (28나)의 구조이다. 이 이동은 선택적인 이동으로 Stowell의 분석이나 본 논문의 분석에서 이러한 이동을 금지하는 제약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이동이다. (28나)의 구조에서, 중간 절에 내포된 복사체로 인해 최하위 중속절 사건은 중간 절의 사건 시간과 같은 시간을 지시하고, 선택적인 이동으로 최상위에 위치한 현재시제로 인해 최하위의 중속절 사건은 문장 발화 시간도 지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John과

10. 의명의 논평자가 지적하였듯이, future와 present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듯이 반과거극어라고 가정할 때, (24)와 같은 구문에서 어느 요소에 반과거극어 제약조건을 먼저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구조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28)에서와는 달리, (8나)의 제약조건을 최하위의 present에 먼저 적용시킨 후 중간절의 future에 적용시키면 아래와 같은 구조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i) [[that tomorrow at breakfas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John PAST past tell me [that tomorrow at breakfast he FUTURE futur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이때 얻어지는 해석은 John이 식사를 하는 시간은 문장 (24)의 발화시점과 John이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 해석은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의미론적 측면이나 화용론적 측면에서 어긋나는 해석이다.

또한, 구조 (i)는 통사론적 문제점도 갖고 있다. 그것은 제일 상위에 있는 복사체 ‘that they PRESENT present b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가 고유결속 (proper binding)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24)에서 (i)를 도출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그 어머니의 식사시간은 John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의 발화시점인 지금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앞의 각주에서 논의된 첫 번째 해석이다. 두 번째 해석은 식사시간의 폭을 과거로 늘려 John이 철수에게 말한 시간까지 포함하도록 해석하면 얻어진다.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영어 시제 해석 규칙이 설정될 수 있다.

(29) 미래 형태소는 반과거극어(Anti-PAST polarity item)이다.¹¹

조건 (29)를 앞에서 논의된 (8나), (18가) 그리고 (18나)의 세 개의 제약조건과 합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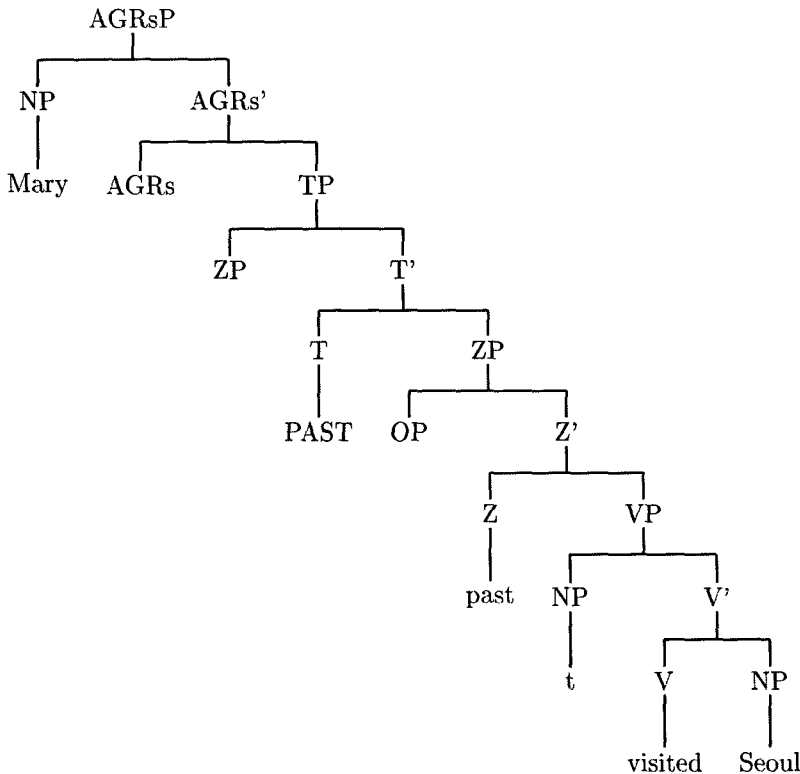
(30) 과거극어 past는 시제 PAST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야 하며 present와 future는 반과거극어로서 PAST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present와 future는 같은 절에서 각각 PRESENT와 FUTURE에 의해 허가되어야 한다.

4.3 접사로서의 FUTURE

본 절에서는 영어에 FUTURE 시제를 허용할 때, 일반 동사의 미래형이 나타나지 않는 영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어떻게 통사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서 현재 알려진 여러 통사론중에서 Chomsky (1995)의 최소주의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Stowell의 시제구조가 어떻게 최소주의 이론에 접목될 수 있는지 과거시제를 가진 단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31) Mary visited Seoul.

(32)



11. 본 논문의 가정과는 달리 영어에 미래시제가 없다고 가정하는 분석에서는, (29)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i) 비과거 (non-past) 시제 형태소는 반과거 극어이다.

(32)는 Stowell의 시제 구조를 접목시킨 최소주의 이론에 따른 (31)의 문자화 직전 구조이다. (핀의상 AGRoP는 생략하였다.)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Stowell (1993)은 과거형태소 past는 T의 내부논항 ZP의 핵 Z에 설정이 된다고 본다. 이를 동사의 시제 형태소는 동사와 결합하여 기저형에서 삽입된다고 보는 최소주의이론에 적용한다면, Z에 시제 형태소 접점 자질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Z는 아무런 기능없이 존재하게 되므로 경제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32)의 논리형태에서 동사 visited는 Z로 핵 이동하여 과거 형태소 자질을 점점 받고, 다시 T로 핵이동하여 과거시제의 자질을 점점 받는 것으로 본다.

이제, 영어의 FUTURE의 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FUTURE는 다른 두가지 시제, 즉 PAST, PRESENT와 같은 통사적 특성 또는 같은 자질을 갖는가? 일견 이 세 시제가 모두 같은 자질로 취급될 수 없는 듯하다.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영어의 본동사는 과거형태소와 현재 형태소를 갖지만 미래형태소는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의 결과로 종속절의 시제 자질 점점에 있어서 PAST, PRESENT와 FUTURE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33) 가. John thinks that Mary runs a restaurant.

나. John said that Mary came.

다. John said that Mary would visit Seoul soon.

(33가)의 문장에서 종속절의 현재 시제 자질은 논리형태에서 핵 이동하여온 동사 runs의 시제 자질을 점점한다. (33나)의 종속절의 과거 시제 자질 역시 논리형태에서 핵 이동하여온 동사 came의 시제 자질을 점점한다. 하지만, (33다)의 종속절 미래 시제는 핵 이동하여온 동사 visit의 시제 자질을 점점하는 것이 아니라, would의 (미래) 시제 자질을 점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은 왜 종속절 TP의 핵 T의 미래 시제 자질이 본 동사의 시제 자질을 점점하지 않고 조동사의 시제 자질을 점점하여야만 하는 그 통사적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 이유는 영어의 미래 시제는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와는 달리 논리형태 이전의 단계, 즉 문자화 이전의 단계에서 만족되어야 하는 접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미래 시제가 접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미래형 본동사가 없는 영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통사적으로 무리없이 나타낼 수 있다. 접사의 성격을 가진 자질은 양동휘 (1995)에서 설명하듯이 문자화 이전에 어떤 어휘적 요소가 그 자질에 부가되는 것을 요구한다. 영어의 FUTURE가 접사의 성격을 띤다면, 그 FUTURE는 문자화 이전에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어에서 T의 동사 자질은 약하므로 기저형에서 동사구에 생성된 어떠한 동사도 논리형태 이전에 T로 핵 이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T의 FUTURE는 동사구에 생성된 본동사의 이동에 의해 만족될 수 없다. 결국, 종속절의 미래 시제 자질은 문자화 이전의 단계에서 그 자질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본동사 아닌 다른 어휘적 표현에 의해서 점점,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다.¹²

영어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휘적 표현은 will이나 would가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 미래 시제가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와는 달리 접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언뜻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어와 같이 동사의 과거 형태, 현재 형태, 미래 형태가 모두 존재하는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동사의 과거 형태나 현재 형태는 존재하나 미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특이한 현상을 고려한다면, 영어의 미래 시제가 다른 시제와는 달리 접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12. 최소주의이론에서 기저구조에서 생성되지 않고 최후수단의 원리에 따라 문자화 직전단계에 삽입되는 현상중 대표적 현상은 아래의 예문 (i)에 나타나는 'do' 삽입이 있다. (ii)는 (i)의 문자화 직전의 통사구조이다.

(i) Mary did not visit Seoul.

(ii) Mary not visit Seoul.

위 예문에 나타난 'do' 삽입현상을 본 논문에서 논의된 Stowell의 시제구조를 접목시킨 최소주의이론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논리형태에서 동사 visit는 내부논항 ZP의 핵 Z로 핵 이동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동사 visit이 Z로 핵 이동하는 것은 중간의 Neg란 핵을 건너 이동하므로써 최소연결조건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문이 되는 것을 막고 정문의 구조로 만들기 위하여 최후 수단으로 'did'가 삽입된다.

(34) FUTURE는 접사의 자질을 갖는다.¹³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나 would는 언제, 어떻게 문장에 나타나는가? 이에 는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하나는, 양동휘 (1995)의 설명처럼 기저구조에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답변은 태만원리(Principle of Laziness)에 따라 T의 미래시제 점검자질과 그 내부논항 Z의 시제 형태소 점검자질의 만족을 최대한으로 늦추다가, 논리구조 이전단계에서 최후수단 원리(Last Resort Principle)와 완전해석원리(Principle of Full Interpretation)에 의해 will이나 would를 삽입하여 그 점검자질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기존의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만 좀더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Mary가 미래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영어문장을 will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펴보자.

(35) Mary FUTURE future visit Seoul.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어의 동사는 미래 시제 형태가 없다. 그러므로, 논리형태에서 visit이 시제 형태소 점검자질을 가진 TP의 핵 T의 내부논항인 ZP의 핵 Z로 이동하여 시제형태소 점검을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Z는 논리형태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점검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문장 전체가 비문으로 처리되게 된다. 그래서, (35)가 비문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논리형태이전의 단계에서 FUTURE와 future의 점검자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will이 삽입이 되어 (36)이 도출되는 것이다.

(36) Mary will visit Seoul.

이렇게 (35)가 비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T의 내부논항 ZP인 Z에 삽입된 will은 T로 핵 이동하여 시제자질을 점검 받는다.

반면 (33다)의 논리형태 이전구조는 아래와 같다.

(37) John PAST past said that Mary FUTURE past visit Seoul soon.

(37)의 구조에서도 (35)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논리형태이전의 단계에서 최후수단과 완전해석의 원리에 의해 FUTURE와 past의 점검자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would가 삽입이 되어 (33다)가 도출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어의 미래 시제 자질은 접사의 성격을 가지며, T의 내부논항 ZP의 Z의 형태소 자질이 미래인가 과거인가에 따라서 will 또는 would가 문자화 이전에 삽입이 되어 만족시켜져야 하는 것이다.¹⁴

13. 한 논평자가 지적하였듯이, 혹자는 각주 (12)에 언급된 부정문에서의 'do' 삽입 현상과 의문문에서의 'do' 삽입 현상을 근거로 PAST와 PRESENT 역시 접사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PAST와 PRESENT가 모두 접사의 성격을 띤다면 최소주의 이론에서 아래 (i)과 (ii)와 같은 정문은 도출할 수 없게 되며, (iii)과 (iv)와 같은 비문만이 도출될 수 있다.

- (i) Mary visited Seoul.
- (ii) Mary likes John.
- (iii) *Mary did visit Seoul. (비강조문)
- (iv) *Mary does like John. (비강조문)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접사는 문자화 이전 단계에서 만족되어야 하는데 동사 자질은 약하므로 문자화 이전 단계에서 T의 PAST나 FUTURE의 접사 자질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T의 PAST나 FUTURE의 접사 자질은 최후수단의 원리에 따라 'do' 삽입으로 만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PAST와 PRESENT는 접사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14. 필자는 한 논평자가 지적하였듯이 '가능'의 can이나 '필연'의 must 등의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 역시 POSSIBILITY나 NECESSITY 등의 접사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상조동사가 접사의 특성을 지닌다면 그 조동사들은 본문에서 언급된 양동휘 (1995)의 설명처럼 기저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문자화 단계 바로 이전 단계에서 삽입이 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5. 지시적 접근 방법 및 양화사적 접근 방법

본 논문에서 다룬 Stowell의 시제 분석은 시제를 지시적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시제가 지시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문헌도 Ogihara (1995b) 등 여럿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마치기전 시제는 지시적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논하고자 한다.

시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시제는 명사간에 나타나는 조응관계처럼 분석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지시적 접근 방법(the referential theory of tensed sentences)이며, 둘째로는 시제가 지시적 특성을 가졌다기보다는 every와 같은 양화사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양화사적 접근 방법(the quantificational theory of tensed sentences)이다. 전자의 지시적 접근 방법으로는 Partee (1973), Partee (1984)와 Enç (1987)의 설명을 예로 들 수 있고, 후자의 양화사적 접근 방법으로는 Dowty(1979)와 Ogihara (1995a)를 예로 들 수 있다.

Enç (1987)는 Partee (1984)에 입각하여 시제는 대명사처럼 지시적 표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시제가 담화상에서 선행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가. We went to a party. John got a drunk.

나. John arrived at three. (Enç (1987))

(38가)의 예에서 John이 술 취한 시간은 파티시간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며, 결과적으로 파티 시간은 술 취한 시간의 선행사 역할을 한다. (38나)에서는 시간부사 ‘three’가 John이 도착하는 시간의 선행사 역할을 하면서 도착시간을 명시하여 주고 있다. 이는 마치 아래의 문장에서 보이는 명사간의 조응현상과 같다고 한다.

(39) John, a man was looking for you. He left a paper for you.

위의 예에서 ‘a man’은 어느 남자나 다 지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John을 찾아와 는 문을 남기고 간 남자를 지시하며,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 ‘he’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앞의 문장에서 설명한 John을 찾아온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하여, Enç 와 Partee는 시제 현상은 명사간의 조응현상과 유사하며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gihara (1995a)는 Enç (1987)의 시제에 대한 지시론적 설명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의 예문을 제시한다.

(40) John: Did you see Mary?

Bill: Yes, I saw her, but I don't remember exactly when. (Ogihara (1995a))

Ogihara는 지시적이론에 따르면 위의 문장은 문맥상 과거의 어느 한 현저한 시점이 지시하는 기간 전체 동안 Bill이 Mary를 보았다면 참이겠지만 이는 Bill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Bill은 단지 그 현저한 기간의 한 부분에 속하는 시간에 Mary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할

는 아래와 같은 비문이 도출되지 못하도록 ‘기조구조에서 T에 접사자질이 부가될 경우 V자리에는 원형의 동사가 생성되어야만 한다’와 같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i)*John could caught Mary.

(cf. John could catch Mary.)

(ii)*Equipment must is supervised if children are in the house.

(cf. Equipment must be supervised if children are in the house.)

하지만 양상조동사가 접사의 성질을 지니는가의 여부는 본 논문의 범위와 관련이 없고 또한 최소주의 이론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는다.

뿐이라는 것이다. Ogihara는 이를 토대로 지시적 접근 방법보다는 양화사적 접근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Ogihara의 주장의 근거는 Bill이 현저한 과거의 시점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는 추론에 근거한 듯 싶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시간이 정확히 몇시 몇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특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 특정인물을 보았으나 그의 이름을 기억해 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본 사람이 특정인이 아니라 그 그룹에 속하는 어느 누구나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로써, 어제 Bill이 같은 반 학생인 Mary를 시장에서 보았는데, 오늘 John하고 이야기하는 도중 그의 이름을 기억해 낼 수 없다고 해서 Mary가 아닌 같은 반의 다른 학생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도 Ogihara의 양화사적 접근 방법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41) 가. Bill: There was a boy looking for you this morning.

나. John: Who?

다. Bill: I don't know his name.

라. John: Then when?

마. Bill: I don't remember that, either.

우리는 이 담화의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도 있다. 가령 오늘 아침 John을 찾아 온 학생이 두명이었고, 그 중 한명은 10시에, 다른 한명은 11시에 찾아 왔다고 하자. 그리고, Bill은 두 학생의 이름을 모두 모르며 11시에 찾아온 학생만을 보았다고 가정하자. 두 학생이 찾아 온 시간, 즉 10시와 11시는 각각 모두 문맥상 현저한 시간 중 한 시점이 되고 있다. 그 문맥상 현저한 시간이란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된 아침이 된다. 이때, Bill의 담화에 담긴 시제가 단지 양화사적 성격만을 지닌다면, 두 학생이 온 어느 시점도 이를 만족할 수 있다. 이는 위의 담화가 Bill이 보지 않은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John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Bill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석이다. Bill의 발화에 적합한 학생은 Bill이 본 한 학생에 국한된다. John이 후에 10시에 찾아 왔던 학생을 Bill에게 보이면서 그 학생이 자신을 찾아 왔던 학생이냐고 물으면 Bill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한 표현이 지시적으로 쓰였는가 아니면 비지시적으로 쓰였는가는 전적으로 화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청자가 또는 분석가가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한 표현을 비지시적 표현으로 분석하였다고 하여 그 표현이 화자에 의해 비지시적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Saeed (1997)는 한 표현에 대한 지시적 해석과 비지시적 해석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를 명사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Our hero, on the trail of a missing woman, is the recipient of leers, or offers, when he tells a barman ‘I’m looking for a woman.’ We know, but the barman doesn’t, that our hero won’t be satisfied by the non-referring reading.” (Saeed (1997))

지금까지의 논의한 것을 토대로 시제에 대한 지시적 접근 방법은 잘 못된 것이라는 Ogihara (1995a)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시제를 지시적 표현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맺는말

영어의 시제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의미론적 접근방법에서 통사적인 접근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논문은 여러 접근 방법을 비교하기보다는, 시제를 두 논항의 시간적 순서를 묘사하는 술어로 간주한 Stowell (1993), Stowell (1995), Stowell (1996)의 시제 분석을 확대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것을 요약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먼저, 보문절 이동은 복사체를 남기는 반면에 관계절 이동은 복사체를 남기지 않는 차이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동사의 의미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투사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영어의 미래조동사 will에 나타나는 미래형태소는 현재시제형태소와 마찬가지로 반과거극어로서 PAST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서는 안된다.

본동사의 미래형이 없는 영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통사적 특성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Stowell의 분석을 최소주의이론에 접목하였다. 영어의 FUTURE는 접사의 성질을 가지며 will과 would는 문자화이전에 완전해석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써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영어의 FUTURE가 접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붙어와 같이 동사의 미래형이 존재하는 언어와 비교할 때, 동사의 미래형이 없는 영어의 특성을 잘 묘사하여 준다고 간주된다.

참고문헌

- 양동휘. 1995. 수정문법론. 한국문화사, 서울.
- 정소우. 1997. 내포절의 시제 연구. 담화와 인지, 4:111-129.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Comrie, Bernard. 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Declerck, R. 1991. *A Comprehensive Descriptive Grammar of English*. Kaitakusha, Tokyo.
- Enç, Mürvet. 1987. Anchoring conditions for tense. *Linguistic Inquiry*, 18:633-657.
- Enç, Mürvet. 1997. Tense and modality. In S. Lappin, editor,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Cambridge, Massachusetts.
- Li, Yafei. 1990a. On v-v compounds in Chine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8:177-207.
- LI, Yafei. 1990b. Xo-binding and verb incorporation. *Linguistic Inquiry*, 21:399-426.
- Ogihara, Toshiyuki. 1995a. The semantics of tense in embedded clauses. *Linguistic Inquiry*, 26:663-679.
- Ogihara, Toshiyuki. 1995b. Double-access sentences and reference to stat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3:177-210.
- Okamura, Yusuke. 1996. The grammatical status of pure future 'will' and the category of future form. *Studia Linguistica*, pages 35-49.
- Partee, Barbara. 1973. Some structural analogies between tenses and pronouns in English. *The Journal of Philosophy*, 70:601-609.
- Partee, Barbra. 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7:243-286.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 Saeed, John I. 1997. *Semantics*. Blackwell, Oxford.
- Smith, Carlota S. 1978. The syntax and interpretation of temporal expressions in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sophy*, 2:43-99.
- Stowell, Tim. 1993. *Syntax of Tense*. UCLA.
- Stowell, Tim. 1995. What do the present and past tenses mean? In P. Bertinetto, J. Higginbotham V. Bianchi, and M. Squartini, editors, *Temporal Reference, Aspect, and Actionality, Vol. 1: Semantic and Syntactic Perspectives*. Rosenberg and Sellier, Torino.
- Stowell, Tim. 1996. The phrase structure of tense. In J. Rooryck and L. Zaring, editors, *Phrase Structure and the Lexicon*. Kluwer, Dordrecht.
- Zagona, Karen. 1995. Temporal argument structure : Configurational elements of construal. In P. Bertinetto, V. Bianchi, J. Higginbotham, and M. Squartini, editors, *Temporal Reference, Aspect, and Actionality, Vol. 1: Semantic and Syntactic Perspectives*. Rosenberg and Sellier, Torino.

접수일자: 1999년 5월 29일

게재결정: 1999년 6월 28일